

Bridgeston, 헝가리공장 가동 본격화

헝가리에 타이어 생산기업 집결 ... Apollo Tyres도 2억유로 투자 건설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전세계 자동차 생산기업들이 몰려들면서 인근 헝가리에는 타이어 생산기업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일본의 타이어 생산기업 Bridgestone은 부다페스트 북서부에 위치한 터터바냐에 1억9000만유로를 투자해 공장건설을 완공하고 4월 초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픽업 트럭과 승용차용 타이어를 생산하며 2009년부터는 하루 8000개의 타이어를 생산할 계획이다.

Bridgestone 헝가리 공장은 유럽 소재 7번째 공장이며, 현재 폴란드에도 2억유로를 투입해 8번째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헝가리에서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는 외국기업은 프랑스의 Michelin과 한국타이어를 포함해 3사로 늘어났다.

인디아의 Apollo Tyres는 3월부터 부다페스트 동부 권좌에 2억유로를 투자해 타이어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900명의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며 지방 정부 및 환경 당국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9월경 착공해 빠르면 2년 후인 2010년 초 본격적으로 생산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Michelin은 1996년 타우루스 공장을 인수한 뒤 2005년 니레지하저에 공장을 증설하는 등 총 1억7500만유로를 투자했다.

또 두나이우바로시에 공장을 건설하고 2007년 6월부터 생산을 시작한 한국타이어는 2010년까지 생산능력 1000만개의 생산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헝가리는 이미 중동, 유럽 지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타이어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어 앞으로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4/10>